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는 교회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obo.or.kr>



에스테반 무리요 작, 『삼왕내조』(c1655), 부분.
캔버스에 유채, 톨레도 예술박물관 소장.

† 오늘의 전례

“우리는 동방에서 임금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 2,1-12 참조)

‘동방(東方)’은 예수님 시대에 페르시아와 그 너머에 있는 지역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율법과 예언자들을 모르던 외국 사람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 구세주께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기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친구로 맞아 주십니다.

제1독서 이사 60,1-6

제2독서 에페 3,2.3-5-6

복음 마태 2,1-12

입당송 보라, 만군의 주님이 오신다. 그분께 나라와 권능과 권세가 있다.

화답송 ◎ 주님, 세상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경배하리이다.

영성체송 우리는 동방에서 주님의 별을 보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신영규 베드로 신부 | 월명성모의집 원장

하늘을 보며 겸손하게 구원의 길을...

세상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느님께서 을미년(乙未年) 한 해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청양(靑羊)의 해인 올해는 젊은이들이 세상의 푸른 벌판에서 더 활기찬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살이가 좀 더 나아지고 신앙도 한층 성숙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 첫 주일인 오늘은 주님 공현 대축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공적으로 드러내신 날입니다. 교회는 해마다 새해 첫 주일에 이 축일을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이들의 참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유에 비천하게 강생하신 아기 예수님,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해주실 구세주이신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각자의 재산과 고향과 가족들을 뒤로한 채 별의 인도를 따라 길을 떠났습니다. 안정된 일상의 삶에 자신을 맡기고 하늘을 보지 않았더라면 결코 길을 나서지 않았을 터이지만, 그들은 하늘을 보았고 별의 징표를 읽었으며 그래서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구세주 아기 예수님을 만나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보물을 바쳐드립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안정된 일상의 삶에 안주하고 있다면, 아니면 너무나 바쁘고 힘든 세상살이에 짓눌려 하늘을 한번 쳐다보지 않

고 산다면, 그냥 그렇게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끔씩 우리도 세상의 삶속에서 하늘을 바라본다면 구원의 빛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늘을 본다는 것은 현실을 등지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현실의 삶 속에 충실하면서 하느님과의 신앙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하느님의 빛을 보고 있는가? 내가 사는 것은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인가? 아니면 하느님께서 알려주시는 구원을 향한 삶인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구원을 향한 길을 떠나야 하겠습니다.

구유에 강생하신 아기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만천하의 구세주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지만 그 모습은 참으로 겸손하고 소박하게 드러나십니다. 하느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선포는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를 알리기 위해 나팔을 불며 힘을 과시하고 내세우는 모습이 전혀 아닙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이라 착각할 만큼 소박하고 겸손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나약하고 겸손한 방법을 통해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계속 선포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위에서 바치시기까지 늘 겸손하게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선포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도 하늘을 보며 겸손하게 구원의 길을 따라 가야 하겠습니다. **필로**

제48차 세계 평화의 날 교황성하 담화문(요약)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형제자매입니다

하느님께서 인류에게 은총과 선물로 주시는 새해를 맞아, 전쟁과 분쟁이 끝나고 고통과 전염병, 자연 재해에 따른 고통이 사라지기를 기원합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며, 이들의 자식들은 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 형제들은 하느님을 닮은 부모처럼 존엄을 지닙니다. 형제자매는 다양성과 차이를 보여주고, 본질적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형제애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인류 가정을 키워나가는 데에 근본이 되는 관계망을 형성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현실적으로 형제애를 끊어버리고 훼손시키는 죄악이 있습니다.

오늘날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는 폐지되었지만 이전부터 인간을 노예로 삼는 현상이 있어왔습니다. 국제 공동체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수많은 어린이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유를 빼앗기고 노예살이와 다름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나라에서조차도 가사 노동, 농업, 제조업이나 광업에서 많은 이들이 노예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하여 비인간적인 생활과 노동의 조건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굶주림을 겪고 자유를 박탈당하며 재산을 빼앗기고 육체적, 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많은 여성들이 강제 혼인과 정략결혼에 시달립니다. 장기 적출, 강제 징집, 구걸, 마약의 생산과 판

매와 같은 불법 행위, 국제적인 위장 입양을 위한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와 성인들도 있습니다. 테러 집단에 납치되고 구금되어 이용당하는 이들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런 노예살이의 원인은 빈곤과 교육 기회의 부재, 부족한 일자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는 이들의 부패, 무력 분쟁, 폭력, 범죄, 테러입니다.

노예살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수도회들이 피해자들을 돕고, 재활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차원에서 예방,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사법 처리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들은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고 법들이 올바르게 적용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정부 간 기구들은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협력하고,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정당한 근로 조건과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웃이 누구이든 그를 형제자매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도록, 무관심과 경제적 이유로 눈 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네 형제에게 무슨 짓을 하였느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연대와 형제애의 세계화를 위한 일꾼이 되어 그들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고, 용기 있게 문제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바티칸에서, 2014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요한 1,9)

동방박사의 경배를 기념하는 주님 공현 대축일

연중 제1주일의 시작이자 또 하나의 성탄대축일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 공현 대축일은 ‘나타냄 혹은 나타내어 보여줌’을 뜻하는 공현(公顯)이란 말에서 의미하듯 성탄을 대외적으로, 공적으로 알리는 것을 기념하는 축일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예수님을 경배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해서 ‘삼왕래조축일’(三王來朝祝日)이라고도 했던 주님 공현 대축일은 메시아가 세상에 오셨으며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온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을 기념합니다. 가스팔, 멜키엘, 그리고 발타살이라고 불렸던 세 명의 동방박사는 별에 의하여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한 곳으로 인도되었고 이들은 황금, 유향,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심을, 유향은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이심을, 장례에 흔히 사용되는 몰약은 참 사람이시며 수난과 죽음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실 분임을 상징합니다.

이 축일은 본래 동방교회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서방에서 동지축제(태양신 탄생 축제)를 12월 25일에 지냈듯이 이집트와 아라비아 등에서는 1월 6일에 이 축제를 지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낮이 점차 길어지기 시작하는 이날, 그리스도의 탄생과 공현을 기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빛이심을 드러내려 했다고 합니다. 이 축일이 3세기 동방교회에서 처음 시작되었을 때는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기적과 요르단강에서의 세례받으심도 더불어

기념하였습니다. 그 후 4세기경 서방 교회에 전해져 동방박사의 조배만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서방 교회는 전통적으로 주님 공현 대축일 축제를 동방박사들의 축제로 기념하며 구유를 장식할 때도 성탄 때는 아기 예수와 마리아, 요셉, 목동들, 가축들에 한정시켰다가 공현 시기가 되면 동방박사 형상을 배치하여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어 세상 안에 처음으로 존재를 알리신 ‘빛과 계시의 축일’로도 불리는 이 날은 구원의 은총이 어느 한 민족, 백성, 시대에 머물지 않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짐을 드러냅니다. 이 축일의 전례 주제도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빛으로 널리 알려지신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날 독서에서는 구약시대에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불러 당신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유대인들에게 약속된 복음 선포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본래 1월 6일인 공현 대축일은 1월 2일과 8일 사이의 주일에 옮겨 지냅니다. 그리고 1월 6일 다음 주일에는 주님의 세례축일을 지냅니다. **필문**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내가 뭘 할 수 있지?

세상에는 슬프고 딱한 사정이 많습니다. 참 안됐다고 생각하면서도 귀찮아서 대개는 그냥 지나치고 맙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마음먹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들을 움직인 것일까요?

2005년 8월, 여름 방학을 맞아 남자 친구와 함께 뉴올리언즈에 놀러갔던 스무 살의 리즈 맥카트니는 하룻밤 사이에 도시를 박살내 버린 태풍 카트리나 때문에 발이 묶였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복구된 뒤에도 리즈는 뉴올리언즈를 떠나지 않고 망연자실해 있는 동네 사람들을 도와서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돈도 없고 인맥도 없는 평범한 여대생이었던 리즈는 남자 친구와 단 둘이서 잔해를 치우고 텐트를 세우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리즈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봉사활동을 한다는 소식을 들

은 가족과 친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전국에서 몰려든 자원봉사자가 어느새 3만 명을 넘었고, 열심한 교우인 두 젊은이가 시작한 ‘성 벨라도 봉사단’은 10년이 지난 지금 최대



규모의 민간 구조단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즈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7만 가구가 여전히 텐트에서 살아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려고 마음먹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이지 떠날 수가 없었어요. 내게 믿음이 있다면, 지금이 행동으로 옮길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필립**

금주의 성인

1월 4일	성녀 다프로서(순교자, 4세기경), 성 리고베르토(주교, 랭스, 749년경), 성 마빌로(순교자, 아드루메툼, 212년) 성녀 엘리사벳 앤 시튼(설립자, 미국, 1774~1821년), 성녀 파라일다(동정녀, 켄트, 740년)
1월 5일	성녀 신클레티카(동정녀, 400년경), 성녀 에밀리아나(동정녀, 6세기) 성 텔레스포로(교황, 순교자, 136년), 성녀 탈리다(수녀원장, 4세기)
1월 6일	성 가스파르(동방박사, 1세기), 성 펠키오르(동방박사, 1세기) 성 발타사르(동방박사, 1세기), 성녀 마크라(동정 순교자, 287년)
1월 7일	성 라이문도(총장, 신부, 1175~1275년경), 성 루치아노(신부, 순교자, 312년) 성녀 켄티게르나(과부, 은수자, 733/734년경), 성 티로(은수자, 702년경)
1월 8일	성녀 구둘라(동정녀, 712년), 성 막시모(주교, 511년), 성 세베리노(선교사, 수도원장, 482년) 성 아보(주교), 성 아폴리나리스(주교, 호교론자, 179년경), 성녀 폐가(동정, 은수자, 719년)
1월 9일	성 바닝고(수사, 683년), 성 하드리아노(수도원장, 710년) 성녀 바실리사(동정 순교자, 304년), 성 필란(수도원장, 8세기경)
1월 10일	성 니카노르(부제, 순교자, 1세기경), 성 마르치아노(신부, 480년), 성 아가토(교황, 681년)



■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 봉헌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12월 24일(수) 오후 8시 영천 나자렛집에서 예수 성탄 대축일 전야 미사를 봉헌하셨다.

■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 봉헌



대주교님께서는 12월 25일(목) 오전 11시 계산 주교좌성당에서 예수 성탄 대축일 미사를 봉헌하셨다.

사진 제공: 월간 <빛>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성경통독

<1주간, 2015. 1. 4~10>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창세 1-5장	6-11장	12-17장	18-21장	22-25장	26-28장	29-31장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성경이란: 하느님께서 당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책이다.

모세오경의 구조: 『창세기』(서론)-『탈출기』, 『레위기』, 『민수기』(본론)-『신명기』(결론)

창세기: '창조이야기'(1-11장)와 '성조(聖祖)들 이야기'(12-50장)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창조이야기'는 세상의 창조와 죄 그리고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며, '성조들 이야기'에서는 하느님께서 순례의 길로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친절하게 이끄셨음을 이야기한다. 선조들은 인간적인 약점과 잘못 때문에 자칫 안주하거나 방황에 떨어질 수도 있었으나, 그들이 하느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의롭고 용기 있게 처신하는 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당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 주셨음을 다루고 있다. 즉 성조들의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성 여부와 관계없이 온 인류에게 하느님을 향한 순례 여정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며 구세사의 초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문의 _ 성서사도직 담당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 053)250-3070

올해엔 더욱 더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 종무원회 월례미사	1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1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밀알회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1월 5일(월) 11:00 계산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1월 5일(월) 19:30 꾸르실로교육관

성소 | 피정

한국외방선교수녀회 성소 모임

일시: 1.11(일) 14:00

장소: 부산 본원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미혼 여성

문의: (010)9319-1690

꽃동네 성소자 동계 피정

기간: 1.9(금) 17:00~1.11(일)

장소: 음성꽃동네 사랑의연수원

대상: 고등부~심신 건강한 35세 미혼남녀

참가비: 3만 원

문의: (043)879-0283~4 / (010)5464-1265

서울 삼성산성지 2박 3일 치유 대피정

기간: 1.9(금) 18:00~11(일)

강사: 김용열 신부

출발: 시민회관 10:00

문의: (010)4938-7076

매월 두번째 주 금요일마다 있습니다

빛때제 기도

일시: 1.10(토) 18:00

내용: 식사, 폐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010)9056-9005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10명)

기간: 1.13(화)~14(수), 효령 하늘집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예수마음배움터기도 영성수련

2박 3일: 1.23(금) 17:30~25(일)

4박 5일: 1.19(월) 14:00~23(금)

8박 9일: 1.26(월) 14:00~2.3(화)

이나시오: 1.19(월) 14:00~23(금)

장소: (031)946-2337~8

젊은이 빈마음 피정(2박 3일)

기간: 1.30(금)~2.1(일)/선착순

대상: 만 30세 이하 미혼 여성

장소: 성빈센트홍천기도의 집 / 3만 5천 원

문의: (010)8833-8107

http://www.vincent.or.kr

교육 | 모집

2015 전기 추가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계절제)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1.5(월)~14(수)

분야: 17개 전공, 교원자격증 발급

http://edu.cu.ac.kr 모집요강 참조

문의: 850-3505

2015 전기 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일반, 특수대학원(몬테소리대학원신설)

접수기간: 1.6(화)~14(수)

문의: 850-3583(일반)

660-5512~3(특수)

http://www.cu.ac.kr

대안학교 교육을 위한 간담회

일시: 1.11(일) 14:00

장소: 단내 성가정 성지

대상: 대안 교육에 관심 있는

초6~고2 부모, 자녀

문의: (031)633-9531

대전가톨릭대학교 혼인과 가정 학생 모집

기간: 2.6(금), 17:00까지

서류: 원서, 추천서

접수비: 1만 원

전형방법: 면접 2.9(월) 10:00

모집인원: 일반전형과 청강 00명

제출처: 대전가톨릭대학교로 30 평생교육원

제주도 관광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예약가능

주최: 제주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

(010)4566-6476

책임보험 1억 가입업체
도우미익스프레스
포장이사·사무실이사
대표 양말순(루시아)
591-2424 656-9911
010-2008-2329

RS1 마스터용역
Master Service
“당신의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건물관리/주차관리/경비/소독/청소
김동진(가브리엘) 010-2890-0408
김기원(마우리시오) 010-3157-8087

이 원 의 료 기
혈압계 · 혈당계 · 휠체어 · 산소치료기
뜸 · 부항기 · 주열기 · 찜질기
체온계 · 욕창매트 · 환자용품 · 안마기
실버카 · 보호대 · 글루코사민 · 오메가3
변상범(도미니코), 김인숙(아나타)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 앞
☎(053)256-2512(대표), 2513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성모발현지 외 다수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막달레나

신앙과 함께하는 정신건강의학과
대구정신병원
원장 배임표(요한) 신부
T. (053)630-3000~1
지역사회 최초
보건복지부 “정신의료기관 인증” 획득

31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나노기술·디지털보청기 전문
053)257-8500 / 253-7476
방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만경관 사이 지하도 입구

성누가종합내과외과
(구.성누가의원) 이전진료
진료과목: 소아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신경과
위·대장내시경, 건강검진센터(공단검진, 5대암)
원장 이관식(루카) · 원장 서영익(미카엘)
경북대 치과병원과 삼덕네거리 사이
지하철 2호선 경대병원역 1번출구앞 2층(사대부고 맞은편)
☎ 053)255-3134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때
보건복지부
인증의료기관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환(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송현역 2번 출구

동계 사제성소 피정

중3~고2: 1.26(월)~28(수)

장소: 연화리 피정의 집

고3·대학·일반: 1.28(수)~30(금)

장소: 한티 피정의 집

(참가 학년은 2015학년도 기준,
등록된 예비신학생 아니어도
신청 가능)

신청: 각 본당 사무실/ 마감: 1.11(일)

행사 | 모임

제24회 성 이윤일 요한제

9일 기도미사: 1.12(월)~20(화) 15:00
단, 토 17:00

순교기념미사: 1.21(수) 17:00

주제: 은총과 영광의 200년

문의: 관덕정순교기념관, 254-0151

일본 나가사키교구 신부 초청 특강

일시: 1.17(토) 13:30

장소: 대신학원 강익동 지하1층 강의실

주제: 나가사키 한국인 순교자

강사: 후루스 신부, 렌조 신부(통역있음)

주최: 가톨릭 학술원

교육 | 모집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27차주말: 1.9(금)~11(일)

328차주말: 1.23(금)~25(일)

장소: 한티, 문의: 983-0521

부부사랑은 성가정의 첫걸음입니다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프로그램 연수

기간: 1.19~2.9(매주 월) 9:00~15:00

장소: 별관 대화합실, 교육원 나동 4층

대상: 본당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신청: 3만 원(중식제공) 111까지(공문 참조)

문의: 노인사목담당, 250-3076

2박 3일 성령세미나

기간: 1.9(금) 13:00~11(일) 17:00

2.13(금) 13:00~15(일) 17:00

1박 2일 피정(강사: 김완식 요셉)

기간: 1.24(토) 14:00~25(일) 17:00

신청: 대구성령봉사회, (054)954-0951

제3차 비다누에바 참가 신청

기간: 2.6(금)~8(일), 꾸르실료교육관

대상: 20~35세 미만의 미혼 청년

마감: 1.16(금)까지, 선착순 50명

다음카페: daeguvida

가톨릭근로자회관 1월 영어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1.6(화) 월 3만 원

낮반: 레위기, 요한복음(화,금 10:10)

저녁: 레위기, 사도행전(화,목 19:10)

문의: (010)2578-5535, 관덕정은 잠언

제7기 성교육전문강사 양성과정

기간: 1.12(월)~16(금)

문의: 대구청소년성문화센터,

653-7755, <http://www.dgsay.net>

대학생 필리핀 영어연수 및 해외봉사

대학생: 2차 2.28 / 3차 3.28(8주 이상)

부모동반연수: 매월말 출발(4주 이상)

특징: 영어연수, 해외봉사, 체험활동

캐나다, 호주연계연수 가중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대구가톨릭문화관 강좌 수강생 모집

통기타, 플룻, 우쿨렐레, 오카리나,

바이올린, POP, 톨페인팅, 가야금

초코아트, 백세건강

문의: 476-6211

바오로 모래놀이치료 상담센터

장소: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본원

대상: 심리적, 정서적도움이 필요한분

강사: 박지선(예노파) 수녀

(모래놀이 전문치료사)

문의: (010)4600-2433/ 659-3333

2015 보육교사양성과정 신입생 모집

특별과정(소양)자격취득가능(1년과정)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보육교사교육원

850-3366 / 3377

2015 학산야간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기간: 1월~2월 / 무료수업

장소: 학산종합사회복지관(달서구 월성동)

내용: 검정고시준비(주간·야간반)

문의: 634-7230

결혼정보회사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초혼/재혼)

전국대표전화 1566-6205

대구 070-8827-6207 부산 051-817-3885~8
서울 02-579-3889 02-3141-3888

<http://www.mjms.co.kr> / 대표 김순자 (마리아)

이상도 신경과

신경과 / 내과 / 정신건강의학과

이상도

(프란치스코)

대한 신경과 학회장 역임
대구 경북치매 연구회 회장
계명대학교 명예교수

현대백화점 뒤

☎ 053)252-0418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백내장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한영한마음아동병원

병원장/의학박사 손찬락(라파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 오전 9시~밤 9시 까지

☎ 260-7777 ☎ 260-7575

☎ 서부정류장 관문시장역(구달성군청지리)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아름다운 건강의 약속”
더 편한 내과가 함께 합니다.

더 편한 내과

부설 : 건강검진센터

대구광역시 남구 월배로 470

군청빌딩 3층 (구 달성군청)

원장 윤석진 (야고보) ☎ 053)651-7585